

자신의 참본성 밝히는 마음공부 노래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 창단 30주년 기념음악회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한마음선원(주지 혜원) 선법합창단이 창단 30주년을 맞았다. 대형 스님의 선시와 법어를 노래로 만들어 마음의 도리를 널리 전하는 선법 합창단은 12월 13일 안양아트센터에서 30주년 기념음악회를 갖는다.

'한마음으로 돌아가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사부대중 340여 명이 출연한다. 스님 64명을 비롯해 보살합창단, 거사합창단, 청년합창단, 어린이합창단 등 계층별로 구성된 합창단들이 무대에 올라 선법가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한마음선원 합창단은 "선법가는 대형 스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부의 방편 중 하나다. 합창단은 마음의 원리에 대한 가르침을 노래로 익혀 그 의미를 대중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심부름꾼이라 할 수 있다. 단원 모두가 각자의 업을 가지고 있는 비전문가들이 이루어져 있지만, 이들은 실력의 여부를 떠나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한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공연 제목처럼 뜻을 모아 무대를 펼칠 예정"이라며 공연의 취지를 설명한다.

창단 3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시간의 발자취를 시대별로 정리하는 자리로 공연이 꾸며진다. 1부에서는 대형 스님의 법어 영상을 시작으로 스님들의 합창 '선법가는' '선정관문 알아보세'가 불려진다. 이어 OB합창단이 '마음의 불씨' '누가 하는가요' 등을, 청년합창단은 '공심 공제 돌아노 노래' 등을, 어린이합창단은 '한사랑, 마음의 씨앗' 등을 공연하고 김원규 씨가 '정신발전의 길'을 독창한다.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은 '한마음으로 돌아가네'라는 주제로 12월 13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음악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사부대중 340여 명이 출연해 대형 스님의 가르침을 선율로 전할 예정이다.

12월 13일 안양아트센터서

대형 스님 가르침 선율로

선법가 음성교과 30년 관록

2부에서는 서운재 씨의 독창 '자유인의 한마음', 청년 소리꾼 최준희의 피아노 병창, 보살 합창단의 가요메들리와 거사합창단의 '햇빛비, 혼성 합창단과 청년 합창단의 '공심으로 흐르네', OB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의 '그 마음 그대로'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 '만남'을 끝으로 공연은 막을 내릴 예정이다.

선법합창단의 기획을 맡은 윤수영 보살은 "각 합창단 별로 1주일에 3~4번 씩 모여 연습하고 있다. 선법가 공연은 물론 2부

에서는 좀더 색다른 무대를 보여줄 예정이다. 보살합창단은 울동에 맞춘 가요메들리를 거사합창단은 개그콘서트의 '햇빛비' 프로그램을 응용한 무대도 펼친다"고 설명한다.

거사 합창단 해재승 단장은 선법가는 수행의 한 방편이라고 강조한다. "각자의 업이 있기 때문에 연습하기가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두가 선법가를 배우고 익히는 것을 자기 수행의 방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임직하신 대형 스님께서는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에 맞는 수행법의 하나로 선법가를 권하셨다. 일상 생활을 하면서 자기 마음과 몸을 잘 지켜볼 수 있는 생활 참선의 한 방편이 선법가라고 생각한다"며 선법합창단 활동의 보람을 밝혔다.

한편,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은 1984

년 창단 이래 소년소녀 가장돕기·군법당 음성공양, 대장경연구소 발전기금 모금 공연, 안양교도소 공연 등을 통해 선법가로 세상을 밝히는 공연을 이어왔다. 특히, 1986년 4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음악제 찬불가 공연을 시작으로 1987년 호암아트홀서 한마음 선원 국악 포교단 정기발표회를, 1999년에는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해탈의 문'을 주제로 공연하기도 했다. 2001년에는 제1회 한마음 합창제 '임의 소식'을, 2004년에는 제2회 간암환자돕기 한마음 합창제, 2011년에는 '제3회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한마음 음악제'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가졌으며 2013년에는 오대산 월정사 야외특설무대에서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대합창제'를 개최한 바 있다. 정혜속 기자 bwjhs@hyunbul.com

불교문화상품 브랜드 '본디나' GD마크 선정

꽃살문·단청 문양 수첩 30점... 브랜드 경쟁력 강화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이 지난 5월 런칭한 전통문화상품 브랜드 '본디나'가 산업통상자원부 우수디자인상품(GD마크: GOOD DESIGN)으로 선정됐다. GD마크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해 상품의 외관, 기능, 재료,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선정하는 제도다.

올해에는 총 1,200여 작품이 각축을 벌인 끝에 화려한 단청과 꽃살문에서 추출된 전통문양 수첩 30종이 영광의 'GD' 마크를 달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본디나는 국가에서 인증한 'GD' 날개까지 달고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본디나'는 '본디 나로 돌아가다, 본연의 나를 되돌아보다'는 의미를 지닌 불교문화상품 전문브랜드로, 은은한 전통의 멋에 현대적 감수성을 더한 전통문양 수첩과 네임택, 여권 케이스, 여행용 폴딩백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본디나 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여 왔다. 이와 함께 불교문화사업단은 서울디자인위크(WEEK) 기간 내 운영되는 서울디자인스팟&투어에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와 서울시에 템플스테이 운영시설 9곳이 선정, 본디나와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현장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 B홀에서 진행되는 2014 서울디자인페스티벌(SDF)의 한국콘텐츠관에서는 본디나 문화상품 특별전시회를 선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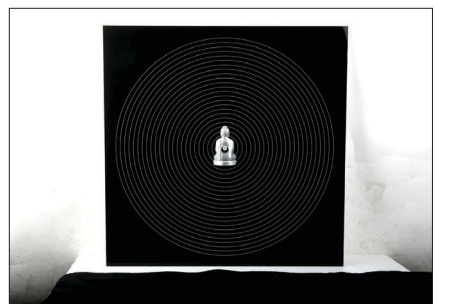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선진 스님, '하루헌 공리전' 서 전시

12월 9일~14일 대구 수성아트피아서

선진 스님(보현암 주지·영남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이 '제11회 하루헌(何陋軒) 공리(窮理) 전'에 참여한다. 공리를 주제로 하는 이번 전시는 12월 9일~14일까지 대구 수성아트피아 멀티아트홀에서 열린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27명의 작가들과 함께 일체가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작품으로 보여준다.

선진 스님은 "마음 밖에 사물이 없어 일체가 마음의 조각이라는 이치를 깨달은 자는 화합하는 자입니다. 화합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없다는 것이고 부정과 거짓이 없어 함께 행복하다는 것이죠. 너와 나의 경계를 뛰어넘어 아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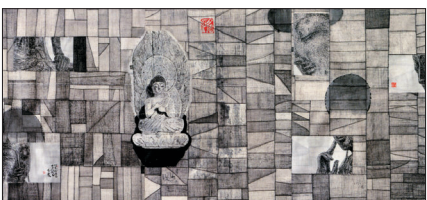
선진 스님의 출품작 '공리'

운 세상을 공리해 보자"며 전시의 취지를 설명한다.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사격을 연상케 하는 작품을 통해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예정이다. 정혜속 기자

간절한 기도 먹빛으로 화폭에

김원교 개인전 12월 3일~8일



김원교 작가의 '내 안의 화염'

"박대성 선생님께서 글씨를 배우기 위해 10년 동안 경주를 오가며 천년 고도에 산재해 있는 불상들을 만났습니다. 불상들의 은은하면서도 다양한 미소를 보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그 미소가 나의 마음을 깨우고 또 거기에서 깊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김원교 작가의 개인전 '먹빛으로 물들다'가 12월 3일~8일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빛' '내 안의 화염' 등 불상에 조각보와 꽃 등을 응용한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지난 10여년간 경주를 오가며 박대성 화백으로부터 글씨를 사사받은 그는 경주의 문화재를 그림으로 담았다. "먹 번의 개인전을 열면서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즈음 평소 존경

하던 박대성 화백님의 제안으로 글씨를 배우게 되었죠. 학교(광동고)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서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선생님의 작업실이 있는 경주를 오가며 너무나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가로 4미터가 넘는 '내 안의 화염'이라는 대형 작품을 선보인다. 2년 동안 작업했다는 이 작품은 비로자나불과 반가사유상 등을 조각보 배경으로 작업, 대중들에게 불상의 편안함을 전달하고자 했다. (02)736-1020 정혜속 기자

BBS 108배 저녁 편성 '수행 강조'

12월 1일 정기 개편...월호·법찬 스님 진행자로 나서

BBS 불교방송(사장 이채원)은 12월 1일 하반기 라디오 프로그램 정기개편을 했다. 이번 개편의 취지는 신행공동체 중심을 들러줄 공주 학림사 오동선원 조실 대원 스님의 '선지식 법문' (월~일 오후 11시) 프로그램이 새롭게 선보이며 '행복한 2시' (월~금 오후 2시 5분)는 불자 대학생들의 멘토로 각광받고 있는 법찬 스님이 새롭게 진행을 맡았다.

기존의 프로그램도 불교적인 색깔을 더하여 명상음악으로 하루를 챙기는 '마음의 샘터' (박지혜 아나운서 월~금 오후 10시 5분) 초기 경전의 수행법을 배우는 '명상카페' (일종 스님, 토·일 오후 10시), 가요와 찬불가가 함께하는 '한 낮의 풍경소리' (정준영 아나운서, 매일 낮 12시 10분)로 개편했다. 정혜속 기자

마를 통해 불교이야기를 풀어갈 '리셋! 밝고 둥글게' (월~금 오후 9시 5분), <금강반 아바라밀경 오가해>를 통해 깨달음의 법문을 들려줄 공주 학림사 오동선원 조실 대원 스님의 '선지식 법문' (월~일 오후 11시) 프로그램이 새롭게 선보이며 '행복한 2시' (월~금 오후 2시 5분)는 불자 대학생들의 멘토로 각광받고 있는 법찬 스님이 새롭게 진행을 맡았다.

기존의 프로그램도 불교적인 색깔을 더하여 명상음악으로 하루를 챙기는 '마음의 샘터' (박지혜 아나운서 월~금 오후 10시 5분) 초기 경전의 수행법을 배우는 '명상카페' (일종 스님, 토·일 오후 10시), 가요와 찬불가가 함께하는 '한 낮의 풍경소리' (정준영 아나운서, 매일 낮 12시 10분)로 개편했다. 정혜속 기자

전통문화의 고수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전통문화미술대전 8일까지

2014년 한국전통문화 미술전전이 12월 8일까지 갤러리 경복에서 열린다. 한국전통문화미술협회(회장 김운기)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22명의 작가가 참여 수월관음도 비전 여래 등의 불교 작품은 물론 깊은 밤 책장 넘기는 소리에, 감로수 등 다양한 전통 공예 작품을 선보인다.

한국전통문화미술협회는 전 회원이 무형문화재, 명장, 문화재 수리등록인 등으로 구성되어 전통공예 전통미술 불교미술



전연호 작가의 '직부사자'

고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불화 시연회, 범종교인 연합회전, 기획 순회전, 문화재단사 등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전통미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02)737-8883

정혜속 기자

성종사
SUNG JONG SA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불광산사 범종 (중량 6700관)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 (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측정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혼을 담아야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재주 부리면 끝이야! 끝!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 전사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ong.com / E-MAIL : sungjongsong@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광식 (중요유형문화재 제 112호·대한민국 명장)